

中·高校生の 精神保健指導

朴 鍾 哲

(朴鍾哲 神經精神科醫院長・醫博)

중·고교생들의 精神健康指導에 대한 논의는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있어 온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서 수많은 견해들이 지금까지 피력되어 왔던 터이므로 필자가 여기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다시 기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최근 임상치료 과정에서 접하였던 몇몇 사례들을 통하여서 학부모나 지도 교사들이 특히 이해하여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하지 않으면 안될 몇 가지 점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부모나 교사들이 중·고교에 다니던 시절과 지금의 중·고교생 사이에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과거의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로써 전달하는 훈계보다는 분위기를 통하여 道義教育 및 生活指導를 받아 왔다. 대가족제도의 틀 속에서 윗사람들이 서로 주고 받는 대화, 맺고 있는 관계, 무언중에 내려지는 계율과 전통들을 통하여서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日帝 말기와 해방 이후 및 6·25 동란 과정에서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것을 체험으로 배워왔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나가는 슬기를 생활속에서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들도 바빠졌고, 중·고교생들 자신도 무척 바빠졌으며, 선생님들도 전문화·분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대형화로 분위기를 통한 실감나는 교육적인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따라

서 말로써만 전달되는 교육, 획일적으로 강조되고 경쟁시키는 형태의 교육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쟁하여 이기지 않으면 탈락할 수밖에 없는 수평적·개인주의적 인간 관계가 강조되는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의 양을 수 있는 수직적인 인간 관계의 경험이 필요할 터인데, 대부분은 행동과 분위기에 앞서 무성한 언어 구사를 통한 ‘말’로써만 교육하려 드는 우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둘째, 그래서 요즘의 중·고교생들은 같은 소리 같은 내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외면하려고 하거나 역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잡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디시끄럽고 의미가 없는듯이 보이는 강한 음향의 ‘라디오’나 ‘전축’을 틀어 놓고 공부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시끄러워서 공부하는데 집중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생각되나 정작 중·고교생 본인들은 신경을 전달받던 잔소리하던 사람들의 먼 곳에서의 대화조차도, 심지어는 조용히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소리마저도 오히려 더 정신적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말’로 전달하고 끝나기 쉬운 간접(= 잔소리)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 같다.

셋째, 조용하고 인락한 자신의 서재는 마다하고 굳이 번잡한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찾는 학생

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들은 적막한 분위기가 안정감이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독감이나 불안감, 심지어는 공포심을 자극하여 학습이 방해받게 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피하여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덜어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전달할 수 있는 특히 어머니의 배려가 있어야 할 대상들이다.

네째, 중·고생들의 '性'에 대한 감각 능력을 빠르게 이해하여야 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소녀들의 초경 연령은 약 16세 전후의 나이였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요즈음의 조사로는 약 반수의 소녀들이 국민 학교 재학 중인 12세 전후에 초경을 경험한다는 보고를 보면, 약 10년에 1년씩은 초경 연령이 빨라져 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현대 문화와 사회 여건이 소녀와 소년들로 하여금 이만큼 性의 성숙을 앞당겨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를테면 지금의 40~50세의 어른들에 비하면 2~4년씩이나 앞서 思春期の 증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변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의 중·고생들은 다분히 비정상적인 '性'의 조숙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어른들의 이와 같은 부당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중·고생들은 반발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어른들의 눈을 피하여 그늘에 숨어서 자기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性의 충동을 제 나름대로 처리하며 당황해하거나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금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사회적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사회인 대중의 식견이 높아지고 전문 직업인의 수가 격증함에 따라 과거처럼 선생님들이 모든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 어찌면 師道를 지키기가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라고 느끼는 때가 많을지도 모른다. 혹시 이러한 선생님들의 감정이 광대무변하게 펼쳐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부딪칠 때 자극받음으로써 비교육적인 지도가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 가혹한 체벌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이런 類의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은사님들의 모습을 연상하여 보면, 그 어른들 역시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들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여 주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때의 감동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여섯째,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職業活動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분업화됨에 따라 어떠한 일이든 한 가지의 일을 성취하려면 수많은 전문인들이 협동하지 않으면 이를 수가 없게 된다. 개개인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독자적 기능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하나의 유용한 힘으로서 작용하려면 이들의 協同이 절대적 요소가 된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얻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면, 성공하였고 느껴지는 순간 協同精神의 결여로 도리어 사회에 누를 끼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단체 생활의 훈련 도장인 중·고생 시절의 학교 생활에서 이를 체득할 수 있도록 유념하는 것은 重要度에 있어 그 으뜸으로 생각하여야만 하겠다.

일곱째, 정서적 표현은 자유롭게 발산시키되 그 행동이 야기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도록 因果關係의 관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야 할 것 같다. 전체 대중 속의 개인은 극히 미약한 것 같으면서도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특성 때문에 또한 개인이 전체 대중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도 지대하다. 더우기 그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개인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역시 극대화된다.

필자는 고교 3학년 재학 중인 아들이 어머니와의 대화 중 화가 나서 좀 버릇없이 굴었을 때 타일렀던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함으로써 筆者의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한편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화가 난다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일 미국의 '웨이건' 대통령이나 소련의 안드로프가 너 같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중요하고 훌륭한 일을 하려거든 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행동은 조심스럽게,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상과 같은 생각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에 지나지 않지만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제 설득력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여덟째, 각종 시험에 있어 꼭 일등을 하여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무엇이든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믿고 있다면,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보다 못한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人間關係는 서로의 우수성을 인

정하면서 또 서로의 결함을 용납할 수 있는 때에만 평등한 관계, 협력하는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겨루는 시험에서 자기의 분수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슬기를 체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학교의 졸업에 앞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각자가 서로 다른 면에서 우수성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이웃을 통하여 채울 수 있을 때에만 人間生活은 다양해질 수 있으며, 풍성하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접근하여 가는 것이 우리 人生的 命題라면 행복한 인생관, 평등한 인간 관계, 민주주의의 기초가 중·고교 시절에 다듬어 지도록 힘써야 하겠다. ☒

◇

〈24p에서 계속〉

自然保護의 의미는 實感될 수 없으며, 개발과 파괴가 성행하고 있는 곳에서 生態系의 本質을 알려주는 教育的인 效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保護教育이 成功的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들이 우선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 ① 自然保護를 위한 汎國民的인 意識改造作業이 先行될 것.
- ② 自然保護教育을 위한 專門家의 양성을 시급히 할 것.
- ③ 學術活動의 진작을 위한 國家的인 배려가 있을 것.
- ④ 自然保護教育의 실습장을 확보할 것.

結 言

진정한 自然保護는 人間이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自然을 再編成하지 않고 自然의 基本原理에 스스로 순응하며 自然에 調和를 이루어 나가도록 人間을 教育하는 일이다. 또한 人間만이 아닌 다른 모든 生物들도 이 地球를 함께 나누어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지구상에서 인간이 자기 중심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啓導하며, 나아가 自然은 우리 후손들의 것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빌려서 쓰고 있다는 정신적 자세가 마련될 때 가장 바람직한 教育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제2단계, 제3단계 운동을 꽃피우게 될 주춧돌이 됨을 믿어마지 않는 바이다. ☒